

유죄에 침묵한 손해원...“납득못해”

선고 후 취재진 앞서 굳은 표정...묵묵부답
1심, 실형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안 해
변호사 “억울한 1심...합리적 의심 여지 有”

손해원 전 의원이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이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2시36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

다만 그는 법원을 빠져나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변

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억울한 1심”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해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

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정 기자

여수 석유화학업체 사택서 불...1명 부상

12일 오전 3시1분께 전남 여주시 소호동 모 석유화학 제품 전문업체 사택 1개 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6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7명이 긴급 대피했다.

2층 규모 사택 객실 38곳 중 1곳이 타거나 그물려 소방서 추산 7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 마장호수에서 부패한 여성 시신 발견

경기 파주시 마장호수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파주시 광탄면 마장호수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다니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심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었으며, 사체와 주변에서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패 상태로 볼 때 이 여성이 이미 수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문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현재 유전자 감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지문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요청한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입건

버스 탑승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7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창복)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버스를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밀쳐 안경을 파손한 승객 A(78)씨를 단 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행 중 버스기사를 폭행했으면 운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중처벌을 받지만 정차 중 승차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공개했다.

경찰은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포항시에는 지난 몇 달간 지역 내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경각심이 부족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꽃지해변 산책 20대, 웅덩이에 발 빠져

지난 11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A(25)씨가 해변 웅덩이에 발이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 태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 나왔다.

1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모래해변을 산책 중이던 A씨는 물이 고인 웅덩이를 예상도 보고 건너다, 다닌 왼쪽 발이 웅덩이 평속으로 박히면서 움푹달락도 못하고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꽃지 해수욕장은 모래 유실방지 공사 진행으로 말뚝 박힌 주변에 갯벌이 섞인 모래펄 웅덩이가 형성돼 이용자 보행 안전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비내섬 인근서 70대 시신 발견...폭우 실종자 추정

12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비내섬 인근에서 소태면 아동리 실종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실종자 수색 중 해당 시신을 발견해 오전 11시40분께 인양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36분께 충주시 소태면 아동리에서는 A(75)씨가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해당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실종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해당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8·15집회 취소요청...강행맨 현행범 체포도 고려

총 4만2000여명 광화문 일대 운집 신고



지난해 8월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역-승례문 방면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이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조치가 예고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오는 15일 열릴 광복절 관립 집

회를 금지할 계획”이라며 “경찰은 사전에 각 단체를 상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요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

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8곳은 오는 15일 정오 경복궁 인근 사직로에서 4만2000여명 규모의 ‘8.15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자유연대의 집회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개 차도와 인도 등이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을지로 1가사거리-한국은행 앞 사거리 등에서 연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해당 단체들에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수원, 여아 시신 발견

친모가 3년전 살해

10일 경기 수원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는 생후 1개월된 영아로, 3년 전 살해당한 뒤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40대)씨를 살인 및 시체는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인계동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자신의 딸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초 3세 여아로 알려진 A씨의 딸은 생후 1개월령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분유에 수면제를 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천과 비닐로 감싸 3년 동안 감춰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해 A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던 A씨는 딸을 입양 보내려고 했으나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